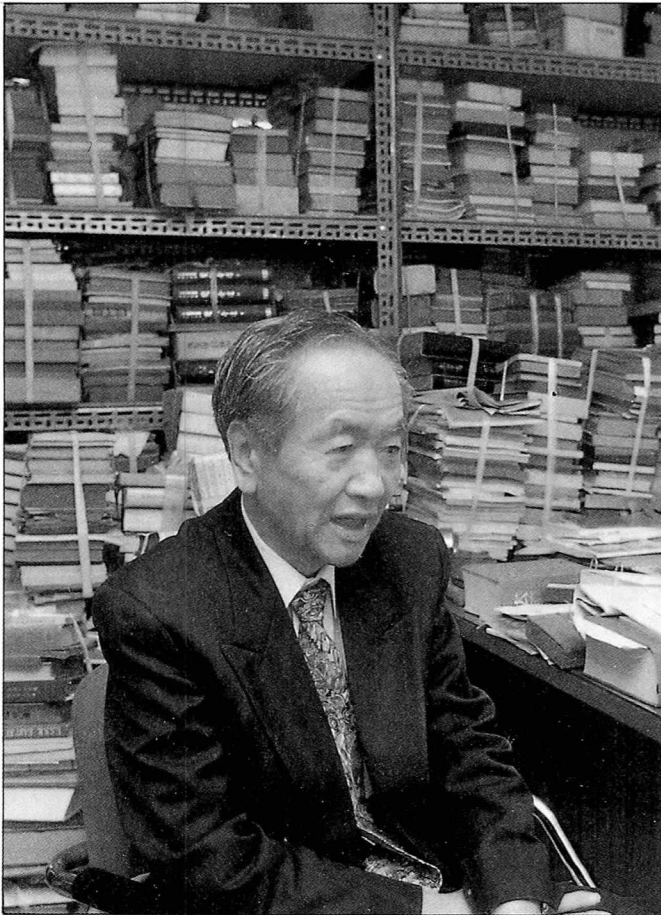


# 출판현장 한평생의 경륜과 열정

「속·책은 만인의 것」 펴낸 이경훈씨



이경훈씨는 「속·책은 만인의 것」을 통해 40여년 출판계 현장경험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륜과 식견을 청년의 열정에 담아 독자들에게 들려준다.

청년의 열정과 노년의 경륜을 한 몸에 갖추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은 일이다. 청년의 열정은 순수하지만 불안해 보이고, 노년의 경륜은 지혜롭지만 활기가 없어 보인다. 최근 「속·책은 만인의 것」을 펴낸 이경훈씨(70. 보성사 대표)는, 그러나 예외가 된다. 적어도 출판에 관한 한, 그에게는 청년의 순수한 열정과 노년의 원숙한 경륜이 함께 한다. 「속·책은 만인의 것」을 통해 그는, 40여년의 출판계 현장경험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륜과 식견을 청년의 열정에 담아 독자들에게 들려 준다.

“지난 1983년에 펴낸 「책은 만인의 것」 이후 10년 동안 이곳저곳의 지면에 발표했던 글들을 모았습니다.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혼자 물어 두긴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 감히 용기를 냈죠. 앞서의 책이 출판협회

사무국장으로서의 18년 재직 경험을 정리한 것이라면, 이번의 속편은 협회 조직에서 물러나 출판현장에 복귀해서 겪었던 일과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 7장 및 부록 2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 수록된 글은 모두 80여편으로, 제1장 ‘普成社에 다시 불을 지피다’에는 그가 1961년 창립한 출판사 보성사에 얽힌 사연과 함께 ‘출판 편집 총서’ ‘글 더 잘쓰기 총서’ ‘휴먼 라이브러리’ 등 보성사 발행 도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았다. 제2장 ‘한국도서관연구회 설립과 나’는 도서관 관련 글 모음. 1983년 임대섭씨 등과 함께 창립한 한국도서관연구회에 얽힌 이야기들을 비롯해 일본 등 선진국의 도서관 현황과 우리 도서관의 실정을 다룬 글, 그리고 그의 고향 파주에 ‘동일도서관’을 세우자는 제안과

함께 “세금으로 책을 사는” 바람직한 도서관상을 제시한 글들을 모았다.

제3장은 이경훈씨가 4년여 동안 상임관리역으로 재직했던 「출판저널」 창간에 얽힌 이야기와 함께 우리 출판현장의 문제점들을 진단한 단평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4장 ‘문화상품, 책의 유통문제’에서는 서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부분에서 그는 “상행위를 경시한 구시대의 가치관 탓에 서점 역할의 중요성을 진작에 깨닫지 못했다”고 자책하는가 하면, 단위 농협이나 ‘面營’ 서점의 설치 같은 독특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서점문화의 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누리기 위해서는, 일본의 ‘町村서점’처럼, 우리도 농협이나 시골의 면단위 관청에서 직영하는 서점들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4장과 5장에는 각각 국제출판협회 총회 등 해외 출판현장 참관기 및 해전전문대 출판과 출강 10여년의 회고기를, 그리고 제7장 ‘어떻게 해서든 책은 읽혀야 한다’에는 독서교육과 독서운동에 관한 글들을 한데 모았다. 독서운동과 교육은 도서관과 더불어 이경훈씨가 가장 큰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이기도 한데, 「한일 국어교과서와 독서교육 내용의 비교분석」 같은 글이 특히 주목을 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어교과서에 실린 글들은 모두 작품명 작가명 번역자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독서지도는 결국 담당교사의 역량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막연한 형편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각 단원마다 학년별 지능발달에 맞춘 자국인의 창작 문학작품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저·역자의 이름과

변안한 작품은 그 출전을 밝혔고, 각 학년마다 한 단원을 ‘즐거운 독서’ ‘풍부한 독서’ ‘독서권장’ 등의 이름으로 하여 4~5권의 책을 각각 100자 정도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분량으로 보아 이 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록편은 이경훈씨가 진행자로 참여했던 「출판저널」 및 「교과서연구」지의 대담기록을 모은 것. ‘증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와 ‘교과서 출판원로에게 듣는다’ 등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경훈씨가 아니면 끝내내기 어려운, 초창기 한국출판의 면모를 살피는 유용한 자료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해방 이후 잠시 교사생활을 했던 이경훈씨는 “학교보다는 독자의 범위가 훨씬 더 넓으니 교육의 효과도 그만큼 더 크겠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출판계에 뛰어들어, 40여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출판의 흐름 한가운데에 몸을 담았다. 그가 실무자로 참여한 일들 가운데 굵직한 것만 꼽아도 출판협회 사무국장 일을 비롯해, 출판금고 창립, 출판문화회관 건립, 「독서신문」 및 「출판저널」 창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올 한해 내내 병고에 시달리며 어렵사리 펴낸 「속·만인의 책」은, 그런 이경훈씨의 오랜 경험과, 오래면서도 식지 않은 열정이 담겨 있어 소중한 기록이다. 감나무가 많아 玩柿齋라 이름붙인 서울 정릉 집과 마포의 보성사 사무실을 오가며 “隨冊往還(책을 따라 편력한다)”하는 이경훈씨는, 이 책 「속·책은 만인의 것」을 통해, 그가 나이 때문이거나 단순한 예우의 차원이 아닌 출판계의 진정한 ‘어른’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 신간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21세기 우리 경제의 선택은?



김수행 譯  
이 책은 현재의 불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선진국들을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고통을 실업자의 저소득층에게 집중시키는 유형이고, 둘째는 국가가 경제에 보다 깊숙히 개입 하는 유형이고, 셋째는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 하는 유형이다.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세계경제 동향에 관한 획기적인 분석을 한 역작!

정가 : 10,000원

## 신간 감투공화국

現 한국경제신문사 사장 호영진. 그가 분석한 한국인의 감투선호사상과 의식구조.



三人行에 必有會長? 호영진 지음  
3명만 모여도 회장을 뽑는 나라. 크기는 대통령에서 작게는 종친회까지 국민 모두가 감투에 목마르고 감투싸움에 날란다. 외관 중시·양반의식·기술경시·정경유착등 공사 혼돈의 가치속에 자리잡은 우리 정치·경제·사회... 감투공화국을 이끌어가는 경영층의 의식구조는? 감투공화국에 살고있는 우리들의 처세학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의식의 개혁을 부르는 책.  
정가 : 6,000원

## 신간 신왕오천축국전

“산은 산이요 물은 그저 물일 뿐!”  
천오백 년 전에 시작된 구도여행은 그렇게 완성됐다.  
동아일보에 연재, 수많은 독자를 구도의 길로 이끌었던 고은의 불교성지순례기 완전 출간!



우리시대의 스승 고은은 이 「왕오천축국전」을 평생의 업으로 선택, 천오백 년 전 오직 구도의 일념으로 이 땅을 떠나 떠나면 인도에까지 이른 혜초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고은 저/울길러/변형판  
288면 / 8,000원

동아출판사 ☎861-4818